

후타이지 절 (不退寺) 의 불상

후타이지 절에는 불교 신을 표현한 여러 목조상이 있으며 그 기원은 헤이안 시대(794~1185)로 추정됩니다. 후타이지 절의 본존은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상입니다. 전설에 따르면, 1.9m 높이의 계수나무상은 후타이지 절을 건립한 시인이자 귀족인 아리와라노 나리히라(825~880)가 이상적인 여성을 표현하고자 조각한 것입니다. 메이지 시대(1868~1912)까지 이 불상은 숨겨진 채로 보관되었습니다. 1600 년대 후반부터의 기록이 담긴 ‘와슈지샤키 (和州寺社記)’에 따르면, 이 불상은 주지만 볼 수 있었던 데다 재임 기간 중 단 한 번만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.

전승에 의하면 이 불상은 9 세기에 만들어졌지만, 불상의 디자인에는 1 세기 더 늦게 조각되었음을 시사하는 요소가 있습니다. 조각의 커다란 상투, 늘어뜨린 머릿단, 선명하게 각진 옷 주름 등이 이러한 요소에 해당합니다. 왕관 양쪽에 달린 넓은 리본도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디자인 요소입니다. 지금은 도료가 대부분 떨어져 나가 그 아래 나무 표면이 드러나 있지만, 불상은 원래 흰색 바탕에 밝은 색의 꽃무늬로 채색되어 있었습니다. 안료가 덜 벗겨지도록 하고 이음매 부분의 변색을 해결하기 위해 2022 년에 대대적인 불상 보존 수리가 진행되었습니다.

후타이지 절의 본당에는 오대 명왕상도 안치되어 있습니다. 평온하고 차분해 보이는 다른 불상과는 달리 이 신들의 노여움 가득한 얼굴은 사람들을 불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속세의 현혹에 대한 분노를 나타냅니다. 모든 불상은 편백나무 조각 여러 개를 이어붙여 만든 것입니다. 5 좌의 명왕은 군다리명왕, 항삼세명왕, 부동명왕, 금강야차명왕, 대위덕명왕입니다.

이들 불상은 900 년대에서 1100 년대 사이에 조각된 것으로 여겨지지만, 부동명왕상(오른쪽 맨 앞의 좌상)에 세공된 수정으로 만들어진 눈은 가마쿠라 시대(1185~1333) 이후에 추가되었습니다.

오대 명왕상은 각각 별도의 작은 방(금당)에 모시다가 나중에 본당에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. 다섯 개 불상 중 부동명왕만 전통적인 불꽃 광배가 있고 평평한 받침대 위에 놓여 있고, 나머지 네 개 불상은 1914 년 보수 당시에 둥근 돌 모양 받침대 위에 놓인 것으로 여겨집니다.